

투데이 칼럼

스피치 시작의 멘트

스피치를 시작할 때 청중의 마음을 가장 쉽게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피치 시작의 역할은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 스피치를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는 칭찬이다.

칭찬은 청중(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칭찬은 청중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다.

회사원들에게는 하는 일과 재품의 좋은 점도 칭찬하고 직접 칭찬이나 간접칭찬도 효과가 좋다.

개인으로도 상대의 능력, 옷차림, 특징 등으로 '미소가 예뻐', '안경 쓰신 지적인' 같은 말로 칭찬하면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둘째, 공감이다.

공감한다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으로 상대의 고민, 아픔, 문제인지 등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일이 불안하구나!", "나도 걱정된다"는 말로 공감은 상대방을 비취주는 거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감정을 좌우하는 일상의 사건들을 찾아보고 만일 나라면 기분이 어떤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 안에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감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기쁨' 보다 '슬픔' 을 '성공' 보다 '실패' 를 말할 때 더욱 공감을 할 수 있다.

셋째, 유머이다. 유머는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머는 반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유머는 반전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방송인 김재동의 '어록집' 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편하게 말하라. 비유를 사용하라. 풍자를 말하라.' 라고 말하였다.

넷째, 전문용어이다. 스피치 할 때 주제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말하면 전문가의 인상을 심어줘 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청중에게 생소한 단어의 주제라면 스피치(강의) 앞부분에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할 때 호감을 갖고 상호소통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이다.

다섯째, 질문이다. 질문은 내용을 쉽게 해서 공감하고

또는 어려운 질문으로 청중이 생각하는 여유를 주는 기법도 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먼이 강의할 때 약 2분간 질문을 계속 던지며 청중이 몰입

되자 자신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전한다고 한다.

여섯째, 이미지 또는 키워드이다. 이미지를 사용하면 청중들을 상상하게 하고 주제에 몰입하게 만든다.

가급적이면 한페이지에 하나의 이미지 또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다.

일곱째, 충격이다. 충격기법은 주제에 대해 짧은 시간에 몰입을 시키는 무기다.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스피치가 끝나면 안되고 도입부에 발인을 했다면 본문에서 해결책 등을 말해주어야 한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으로 본다.

여덟째, 퍼포먼스이다. 스피치의 시작은 꼭 정답은 없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좋은 기법이 된다.

마술사는 스피치 할 때 마술을 보이고 개그맨 정종철은 비트박스를 하며 스피치를 시작한다.

시낭송하고 노래 부르고 시작하는 강사들도 있다.

위의 여덟 가지 스피치 시작하는 기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외에도 창의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스피치 실행의 기법에서 첫 마디, 첫 문장, 첫 단락을 인상 깊게 하여 관심을 확보하면 성공할 수 있다.

사설

역사 속 김영삼 재평가

역대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영삼은 문민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그는 1954년 약관 26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이래 3개의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다.

1965년에는 37세로 의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원내총무, 1974년에는 46세로 당 총재가 됐다.

한국 야당에서는 60대가 되어야 그 자리에 앉는 게 관례였다.

신익희 61세, 조병옥 62세, 장면 60세, 박순천 66세, 윤보선 66세, 유진오 63세, 그리고 유진산이 66세에 각각 당 총재가 됐다.

금융실명제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이어 가장 성공한 개혁의 하나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연쇄적 파급 효과를 냈다.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금융 거래와 부동

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54년 동안 지가(地價) 총액은 1만 배 넘게 폭등했다. 한편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1993년 첫 달 3월에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 78명이 죽고 198명이 부상했다.

6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물이 터져 현역병과 예비군 병사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7월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전남 해남군에서 추락, 68명이 사망했다.

10월에는 부안 앞바다에서 서해페리호가 침몰, 273명이 익사했다.

1995년 10월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다. 1995년 6월에는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 5층 건물이 주저앉아 501명이 목숨을 잃었다. 14개의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1400여 명의 희생자를 기록했다. YS는 8번이나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장수 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

제1회 장수군 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가 오는 8월 12일 금강다슬기 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트로트 가요제는 금강 상류 청정지역인 천천에서 실시되는 금강 다슬기축제를 위한 것이다.

찾아오는 장수를 알리며 문화 예술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지부가 주관한다.

후원은 장수군, 천천면, 전주매일신문사, 금강다슬기 축제 제전위원회, 장수문화원,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장수농협, 장계농협, 주식회사 나봄, 천천면 이장협의회, 천천면 애향회 등이다.

이번 트로트 가요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수상자나, 직업적인 성향으로 대회를 참가하는 자, 가수로 활동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심사는 위원 3~5명 정도 위

촉해 음정, 박자, 가창력, 매너 외에 호흡도, 음원 등을 참고해 심사한다. 특히 관람객의 접수가 반영된다. 시상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기관장상과 주최 단체 회장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행운권 추첨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이에 앞서 장수군 천천면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최근 천천면 시가지 및 면사무소 주변 곳곳에 꽃을 심었다.

이날 꽃길 조성에는 천천면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수국 및 포데리카를 곳곳에 심어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제1회 천천면 금강다슬기 축제'로 천천면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름다운 천천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제1회 장수군 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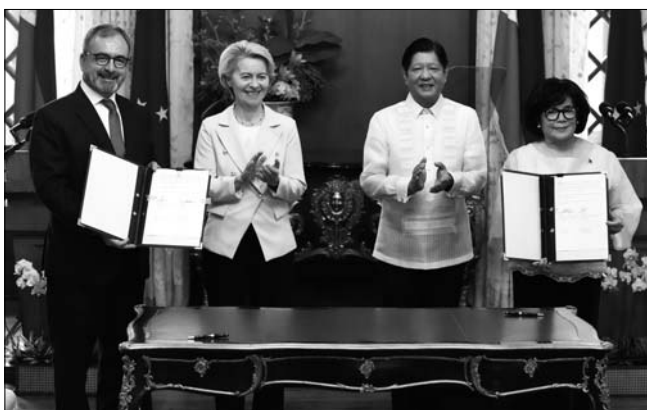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만성 정전과 생활고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7월 30일(현지시각)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 거리에서 만성적인 정전과 생활고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대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인 하마스 깃발을 붙여 태우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해산됐다.

협정식서 박수하는 EU 위원장과 마르코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두 번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페르디난트 마르코스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의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협정식을 미친 후 박수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필리핀 간 외교, 무역, 인보 등 전반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